



8 . 사회 · 복지



8-1.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로 「보건의료 시설」과 「사회복지 시설」을 선호

-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에 대해 「보건의료 시설」(23.5%)과 「사회복지 시설」(20.0%)에 많은 응답을 보임
 - “보건의료 시설”(23.5%)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회복지 시설”(20.0%), “문화생활”(16.6%) 순이며 “도서관”(4.0%)과 “쓰레기 및 하수 처리장”(2.5%)은 낮은 응답률을 보임
 - 타 지역에 비해 “북부권” 지역은 “사회복지 시설”(28.4%)을, “광주인근권” 지역은 “체육시설 및 경기장”(14.6%)을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학력이 높을수록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에 대해 “문화시설”의 응답률이 높음
- 연령별 향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에 차이가 나타남
 - 연령이 낮을수록 “체육시설”, “문화시설”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보건의료시설”, “사회복지 시설”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

(단위 : %)

보육시설	12.0	
문화생활	16.6	
도서관	4.0	
체육시설 및 경기장	7.8	
보건의료시설		23.5
사회복지시설		20.0
공영주차시설	5.6	
쓰레기 및 하수 처리장	2.5	
공원, 유원지	7.8	

[표 8-1]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단위 : %)

구 분		계	보육 시설	문화 생활 공간	도서관	체육 시설 및 경기장	보건의료 시설	사회복지 시설	공영주차 시설	쓰레기 및 하수 처리장	공원, 유원지	기타
2017		100.0	12.0	16.6	4.0	7.8	23.5	20.0	5.6	2.5	7.8	0.6
연령별	15 - 29세	100.0	18.3	27.7	9.2	9.9	13.3	4.4	3.3	2.0	10.6	1.3
	30 - 39세	100.0	17.1	28.1	4.1	11.2	14.9	5.3	8.1	1.1	9.9	0.0
	40 - 49세	100.0	10.1	18.2	5.3	14.6	18.4	14.0	5.4	4.1	9.5	0.4
	50 - 59세	100.0	9.8	15.4	3.0	5.0	26.2	20.4	7.8	5.0	6.9	0.6
	60세 이상	100.0	9.3	7.1	1.4	3.8	32.2	35.3	4.8	1.2	4.5	0.4
	65세 이상	100.0	8.2	5.8	1.5	3.9	33.2	38.0	3.8	1.0	4.1	0.5

※ 자료 : 「2017년 장성군 사회조사」

다중응답 =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선택 1), (선택 2)

8-2. 미취학 자녀 보육 만족도

미취학 자녀 보유 군민의 절반 이상은 보육기관 통해 보육
보육방법에 대한 불만도는 매우 낮음

- 군민의 7.4%는 미취학 자녀가 있으며 그 중 60.8%는 보육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44.1%)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본인이나 배우자”(29.9%), “유치원”(16.7%) 순임
 - “북부권” 지역은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74.1%)의 응답률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음
 -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4.6%) 중 71.5%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22.6%는 “유치원”에 맡기는 것으로 나타남
- 미취학 자녀 보육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이 54.8%
 - “북부권” 지역은 타 지역에 대해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23.4%)의 비율이 낮음
 - 여성(45.3%)이 남성(56.9%)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육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의 보육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30대, 40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미취학 자녀 유무 >>

(단위 : %)

<< 미취학 자녀 보육자 및 기관 >>

(단위 : %)

<< 보육방법에 대한 만족도 >>

(단위 : %)

약간 불만족
2.9

[표 8-2] 미취학 자녀 유무 및 보육자 및 기관

(단위 : %)

구 분		계	자녀 있다	주요 보육자 및 기관								자녀 없다
				소계	본인이 나 배우자	부모님 또는 조부모 님	친인척 또는 지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기타	
2017		100.0	7.4	100.0	29.9	9.3	0.0	44.1	16.7	0.0	0.0	92.6
지역별	중부권	100.0	10.0	100.0	36.6	4.7	0.0	43.5	15.3	0.0	0.0	90.0
	북부권	100.0	2.0	100.0	0.0	74.1	0.0	0.0	25.9	0.0	0.0	98.0
	서부권	100.0	8.5	100.0	22.8	3.8	0.0	57.9	15.5	0.0	0.0	91.5
	광주인근권	100.0	4.2	100.0	26.0	26.0	0.0	22.1	26.0	0.0	0.0	95.8
성별	남 자	100.0	8.6	100.0	36.4	10.1	0.0	38.2	15.4	0.0	0.0	91.4
	여 자	100.0	4.6	100.0	0.0	5.9	0.0	71.5	22.6	0.0	0.0	95.4
연령별	15 - 29세	100.0	24.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76.0
	30 - 39세	100.0	35.5	100.0	26.6	0.0	0.0	52.9	20.5	0.0	0.0	64.5
	40 - 49세	100.0	20.9	100.0	27.9	9.8	0.0	46.3	16.0	0.0	0.0	79.1
	50 - 59세	100.0	1.6	100.0	0.0	59.4	0.0	40.6	0.0	0.0	0.0	98.4
	60세 이상	100.0	0.5	100.0	0.0	65.1	0.0	0.0	34.9	0.0	0.0	99.5
	65세 이상	100.0	0.4	100.0	0.0	100.0	0.0	0.0	0.0	0.0	0.0	99.6

※ 자료 : 「2017년 장성군 사회조사」

[표 8-2] 보육방법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구 분		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2017		100.0	8.5	46.3	42.3	2.9	0.0
지역별	중부권	100.0	5.5	46.3	43.1	5.1	0.0
	북부권	100.0	23.4	0.0	76.6	0.0	0.0
	서부권	100.0	7.3	58.8	33.9	0.0	0.0
	광주인근권	100.0	26.0	26.0	48.1	0.0	0.0
성별	남 자	100.0	9.1	47.8	43.1	0.0	0.0
	여 자	100.0	5.9	39.4	38.6	16.0	0.0
연령별	15 - 29세	100.0	0.0	100.0	0.0	0.0	0.0
	30 - 39세	100.0	13.3	48.6	30.9	7.2	0.0
	40 - 49세	100.0	4.7	44.6	50.7	0.0	0.0
	50 - 59세	100.0	0.0	0.0	100.0	0.0	0.0
	60세 이상	100.0	31.4	0.0	68.6	0.0	0.0
	65세 이상	100.0	48.2	0.0	51.8	0.0	0.0

※ 자료 : 「2017년 장성군 사회조사」

8-3. 선호하는 노후 생활형태

군민 10명 중 7명은 노후에 「부부 둘이서」 살기를 희망

- 군민의 72.9%가 노후에 부부 둘이서 함께 살기를 희망함
 - “부부 둘이서”(72.9%)가 가장 높고 “혼자서”(14.1%), “자식 또는 자식의 배우자”(9.0%) 순임
 - “60세 이상” 연령층의 “부부 둘이서”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고 “혼자서”에 대한 응답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음
- 노후에 선호하는 요양 장소는 「자택」(61.1%)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자택”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전원주택”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음

<< 선호하는 노후 동거 형태 >>

(단위 : %)

<< 선호하는 요양 장소 >>

(단위 : %)

자식 또는 자식의 배우자	9.0	자택	61.1
부부 둘이서	72.9	전원주택	27.3
혼자서	14.1	요양원	2.4
친인척과 함께	0.1	노인 전문병원	3.8
이웃과 함께	1.1	실버타운	5.0
형제 자매와 함께	1.3	경로당	0.2

[표 8-3] 선호하는 노후 생활 형태

(단위 : %)

구 분	계	자식 또는 자식의 배우자	부부 둘이서	혼자서	친,인척과 함께	이웃과 함께	형제,자매와 함께	기타
2017	100.0	9.0	72.9	14.1	0.1	1.1	1.3	1.6

※ 자료 : 「2017년 장성군 사회조사」

[표 8-3] 노후에 요양시 원하는 장소(부부, 혼자 생활형태)

(단위 : %)

구 분	계	자택	전원주택	요양원	노인 전문병원	실버타운	경로당	기타
2017	100.0	61.1	27.3	2.4	3.8	5.0	0.2	0.2
연령별	15 - 29세	100.0	24.1	61.0	0.0	2.0	11.9	0.0
	30 - 39세	100.0	40.2	47.7	0.0	3.8	7.2	0.0
	40 - 49세	100.0	49.4	38.0	2.9	4.0	5.6	0.0
	50 - 59세	100.0	59.6	24.5	2.4	7.3	6.2	0.0
	60세 이상	100.0	85.9	6.4	3.7	2.6	1.1	0.1
	65세 이상	100.0	88.2	3.9	4.0	2.7	0.9	0.2

※ 자료 : 「2017년 장성군 사회조사」

8-4.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향후 늘려야 할 주된 복지서비스는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서비스」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는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서비스」 (34.6%)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21.0%)가 높음
 - “60대 이상” 연령층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 재활서비스”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으며 “40대 미만” 연령층은 “아동 양육 지원 및 돌봄서비스” 항목에 높은 응답을 보임

<<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

(단위 : %)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서비스	34.6
아동 양육지원 및 돌봄서비스	13.5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21.0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서비스	10.9
임신출산 지원서비스	6.8
장애인 돌봄 및 재활서비스	2.6
가사간병 재활서비스	10.5

[표 8-4]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단위 : %)

구 분		계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서비스	아동 양육 지원 및 돌봄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 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서비스	임신출산 지원서비스	장애인 돌봄 및 재활서비스	가사간병 재활서비스	기타
2017		100.0	34.6	13.5	21.0	10.9	6.8	2.6	10.5	0.2
지역 별	중부권	100.0	34.5	17.5	16.1	12.7	7.0	2.3	9.7	0.2
	북부권	100.0	27.6	8.4	25.1	10.8	8.3	3.2	16.6	0.0
	서부권	100.0	37.0	12.2	24.8	10.3	6.6	2.7	6.0	0.2
	광주인근권	100.0	37.6	9.5	24.3	7.0	5.1	2.5	14.1	0.0
성별	남 자	100.0	36.8	14.5	18.3	11.8	6.5	3.1	8.6	0.3
	여 자	100.0	32.2	12.4	23.9	9.9	7.2	2.0	12.4	0.0
연령 별	15 - 29세	100.0	32.9	28.4	6.0	10.7	15.7	1.4	4.9	0.0
	30 - 39세	100.0	33.1	23.7	11.8	13.1	10.1	1.1	6.6	0.5
	40 - 49세	100.0	37.5	11.6	17.2	15.0	6.6	3.3	9.0	0.0
	50 - 59세	100.0	33.5	11.9	17.0	14.0	4.9	4.7	13.6	0.3
	60세 이상	100.0	35.2	5.0	34.6	6.9	2.8	2.2	13.3	0.1
	65세 이상	100.0	33.6	4.9	38.1	5.5	1.5	2.0	14.4	0.1

※ 자료 : 「2017년 장성군 사회조사」

다중응답 =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선택1), (선택2)

8-5.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편견없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가장 선호

-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편견없는 사회분위기 조성」(45.3%)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국사회 적응 교육」(28.2%),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13.2%) 순임

– “60대 이상” 연령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한국사회 적응 교육”에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했으며 “30대” 연령층은 “편견없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

(단위 : %)

경제적 지원
3.2

[표 8-5]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 정책

(단위 : %)

구 분		계	편견없는 사회분위기조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한국어 교육 등 한국사회적응교육	경제적 지원	기타
2015		100.0	45.3	13.2	9.0	28.2	3.2	1.0
지역별	중부권	100.0	46.7	14.1	7.4	26.2	3.6	1.9
	북부권	100.0	40.6	11.4	8.6	36.7	2.7	0.0
	서부권	100.0	47.5	12.2	8.8	26.9	3.9	0.7
	광주인근권	100.0	42.8	14.4	13.8	27.2	1.7	0.0
연령별	15 - 29세	100.0	49.1	10.9	9.1	26.1	3.5	1.2
	30 - 39세	100.0	60.4	9.5	9.4	18.7	0.8	1.1
	40 - 49세	100.0	45.7	13.5	12.8	23.3	1.9	2.8
	50 - 59세	100.0	47.9	12.9	8.9	25.9	4.0	0.5
	60세 이상	100.0	38.1	15.2	7.4	34.8	4.0	0.5
	65세 이상	100.0	36.4	15.6	7.0	36.1	4.3	0.6

※ 자료 : 「2017년 장성군 사회조사」

8-6.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노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점으로 1순위는 「건강문제」, 2순위는 「경제적인 어려움」

- 65세 이상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으로는 「건강문제」 (43.7%)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33.7%)이 높음

- “북부권”과 “광주인근권”은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남
- “65세 이상” 노인들의 소득은 주로 “200만원 미만”에 집중되어 있음
- 혼인상태가 “미혼”인 노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응답 비율이 다른 혼인상태에 비해 낮지만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과 “외로움, 소외감” 항목에 대해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

(단위 : %)

경제적인 어려움		33.7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	1.3	
소일거리 없음	6.8	
건강문제		43.7
외로움, 소외감	6.8	
가족으로부터 푸대접	0.3	
사회에서의 경로의식 약화	1.1	
일상생활 도움서비스 부족	1.6	
노인복지	3.4	

[표 8-6]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단위 : %)

구 분	계	경제적인 어려움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	소일거리가 없음	건강 문제	외로움, 소외감	가족으로부터 푸대접	사회에서의 경로의식 약화	일상생활 도움서비스 부족	노인복지 시설 부족	기타
2017	100.0	33.7	1.3	6.8	43.7	6.8	0.3	1.1	1.6	3.4	1.3
지역별	중부권	100.0	38.1	2.5	6.1	41.2	4.7	0.5	0.4	1.0	2.1
	북부권	100.0	21.4	0.5	12.3	43.0	12.1	0.6	1.2	4.1	0.2
	서부권	100.0	41.2	0.8	3.4	45.5	3.3	0.0	0.6	0.5	0.8
	광주인근권	100.0	28.6	0.4	6.4	48.6	9.5	0.0	3.3	1.1	1.6
성별	남 자	100.0	32.6	2.1	5.8	43.2	6.3	0.5	2.1	1.3	1.6
	여 자	100.0	34.4	0.9	7.5	44.0	7.1	0.3	0.5	1.7	1.1
지역별	15 - 29세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0 - 39세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40 - 49세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50 - 59세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60세 이상	100.0	33.7	1.3	6.8	43.7	6.8	0.3	1.1	1.6	1.3
	65세 이상	100.0	33.7	1.3	6.8	43.7	6.8	0.3	1.1	1.6	1.3

※ 자료 : 「2017년 장성군 사회조사」

우선순위(총점) = 1순위×3점+2순위×1점